

[오피니언]

테마칼럼

여성세계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 향기

김효선
<여성신문사 대표이사>

“

여성이라는 변수가 신선했던 메뉴로 등장해 즐거움을 안겨주는 축제의 정체를 여성후보들에게 기대해본다.

”

'여성성'이란 정체성

프랑스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세이렌 루아알은 사회주의자인 동시에 폐미니스트이다. 그녀는 남성의 행복을 위해 여성의 행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 아이의 어머니인 루아알은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정식 법적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어머니 리더십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세계의 여성지도자들에게 폐미니즘은 삶의 방식이자, 정치인 이미지이고, 선거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추세는 여성 대선후보 풍년을 맞은 한국에서도 이어진다. 보수적인 계층에서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박근혜 대표도 여성당협제를 지지하고 여성리더십의 실천을 강조한다. 어제 여성계 사람들과 뇌팅기념식을

세계적으로 여성지도자의 시대가 열렸다. 미국에서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을 등장한 웰로시. 등단 연설에서 "우리는 대리석으로 된 유리 천정을 부쉈다. 이제 우리를 막을 것은 하늘 밖에 없다"고 기염을 토한다. 세계를 지배하는 영향력의 소유자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전. 민주당 여성후보 헬리리는 가장 유력한 후보이다. 사서전에서 헬리리는 자신의 정치 행보 하나님과 여성을 대변한 성취라고 말한다. 여성으로서의 강력한 사명감으로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는 여성지도자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최초의 여성총리로서 강력한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을 보이는 한편, 대기업 임원의 여성부재를 통탄하는 폐미니스트로서의 면모를 놓치지 않는다.

가진 한명숙 전총리는 총리의 경험을 개인의 것 이 아니라 여성모두의 자산이라고 강조한다. 어머니 리더십, 여성리더십으로 분별과 갈등을 봉합해나가는 화합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신념을 보이고 있다. 민노당의 심상정의원도 이미 폐미니즘이 녹아 있는 진보적 정치노선을 노출하고 있다.

여성정치인이면 당연히 여성문제에 있어서도 진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성들이 여성성을 이렇게 당당히 드러내고 사회생활의 전략으로 활용하기 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여성들에게 '여성성'이란 정체성은 항상 약점이었고, 불리한 적이었고, 위험한 것이었다.

아예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 불안한 정체성을 없애버렸던 것이 운명에 순종하는 대부분 여성들의 선택한 '여자의 일생'이었다.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려는 여성들은 남성중심적인 환경에서 항상 뛰어나, 이질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혹은 흔한 행방을 놓는 소수자로 살아야 했다. 몸은 성인인데 마음은 평에 남성이나, 때로는 아예 남장(男裝)을 함으로써 몸조차 남성으로 바꾸려 했던 여자 아닌 여자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생활에서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성임을 별로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려는 방어적 태도를 몸에 익히게 되었다. 남자들이라면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여자들은 수없이 반복하며 살았던 것도 성차별 사회구조의 한 단면이다.

18일 총리 퇴임 기념식 연설에서 한명숙 전총리는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겁났다. 여전히 할 수 있을까"라는 여성비하적 공포감을 느꼈다

겼다"고 말했다. 자신만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최초의 여성총리를 향해 '얼굴마담' '대독총리'로 보려는 집요한 시선이 있음을 느껴야 했으나 빠른 시일에 탈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제는 오히려 여성이라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대선 출마를 결심한다는 것이다.

여성 후보들에게 바라는 기대

한 전총리의 솔직한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이 사회적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내면적으로 치열한 싸움에서 이겨내야 했다. 여성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까지는 이런 길고 복잡한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대형급 여성 지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국내외 정치현실이 여성들에게 또 다른 축제의 의미를 갖는다. 불안감을 이겨내고 당당한 자신감을 가진 여성들이 내뿜는 강력한 에너지를 만날 수 있는 화려한 축제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 자신감 있는 여성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풍속도를 즐기는 것도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선거 국정의 달글메뉴인 이전투구 당리당략 음모와 모함 같은 종류로 국민들은 정말 고개도 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여성이라는 변수가 신선했던 메뉴로 등장해 즐거움을 안겨주는 축제의 정체를 여성후보들에게 기대해본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성관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지역 각계각층의 리더와 단체, 지역민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이 아닌가 한다. '정부(government)'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권위에 근거한 활동을 지칭하는 반면, '거버넌스'는 공유된 목적에 의해 일어나는 활동을 뜻한다.

그리고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사회단체, NGO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 의한 '협력적 통치'를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사회적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속도가 급속화되면서 기존의 전통적 '정부'에 의한 통치 개념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 있는 사회체제의 유지를 힘들어진 시대상황에서 찾을 수 있을 터이다. '정부'에 의한 통치 그리고 이에 대한 감시'라는 기존의 틀에서 보면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시대가 되었음을 정부나 시민단체나

광주일보가 지역희망 선도하라

고 이를 실현하는데 더 많은 역량을 우선적으로 모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2007년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미 독재대 민주 또는 좌파 대 우파 통일세력 대 반통일세력 등과 같은 정치적 이념적 이분법을 뛰어넘어 세계화 속에 자신의 경쟁력을 키워 내야하는, 제2의 역동기를 창출해야 하는 기회에 서있다.

물론 민주화투쟁의 선봉에서 독재 세력을 극복하고 문민정부·국민정부·참여정부로 이어지는 일련의 민주화의 달성을 아직도 많은 나리들이 빼놓아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분법의 몇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빨리 나을 수 있었던 데에는 누구보다도 우리지역의 힘이 컸음은 물론이다.

최근 들어 광주는 첨단과학기술의 도시로 변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흥에는 우주산업이 들어서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이 지역의 미래를 밝힐듯 지역 언론, 그중에서도 광주일보가 지역의 희망과 미래를 선도하는 주축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광주·전남이 세계에서 가장 희망하고 역동적인 지역이 되었으면 한다.

〈광주과학기술원장〉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오봉주

우리나라의 노년 인구가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돌입했다.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 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평균수명은 늘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활동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삶을 사는 기간을 나타내는 건강수명은 상대적으로 짧다.

다른 사람의 수발을 받으면서 생존하는 기간이 우리나라의 경우 10년이다. 그렇다면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간 간격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뇌신경 회로를 끊임없이 자극해야 한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해

는 천천히 오랫동안 쌓아서 침과 함께 버무린 후 삼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넷째, 심상한 약재와 함께 육류보다는 생선을 즐겨 섭취하고, 종합비타민과 미네랄 제제를 매일 복용하도록 한다. 다섯째,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며 지방이 성장되는데, 65세가 되면 근력의 20%가 감소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근력운동을 지속하면 근육량의 감소를 예방할 수 있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심리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기고



김희호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의 고통이나 문제를 사회 전반의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장애인을 만들어 낸 사회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만든 사회 구조적 모순에 관심을 갖고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회가 연대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통합이란 쉽게 설명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놓여있는 각종 장벽을 제거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충분한 참여를 보장받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신지체나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을 무조건 비장애인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다. 그들의

장애인 배려 없인 사회 통합 없다

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편의증진권 등을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마련해 간다고 할 수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제거하고 올바른 장애 이해를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통합은 여전히 미흡하다.

제2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진정한 사회통합의 실현을 통해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거나 비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사회에 참여해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이야기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진정한 사회 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

활기찬 노년기 삶을 위해서

야한다.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일상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미상핵의 신경 회로 부위가 활성화된다. 또 반복적인 일상을 리듬감 있게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지 궁리하면 뇌 전두엽의 집행기능을 활성화하게 된다. 둘째, 새로운 경험을 주구해본다.

노년기에는 가급적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동호회 활동 ▲여행 ▲봉사활동 등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해마부위가 활성화된다. 해마부위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퇴화하면 기억력장애가 온다. 셋째,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다.

음식은 맵지 않고 짜지 않은, 약간 식거를 정도의 간을 유지해야 한다. 미각 세포가 퇴화되기 때문에 허용이 가능한 경우에 혼자 먹어야 한다. 이를 먹어가지 만 내적으로는 늘 새롭게 짚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루가 또다시 내게 허용되어 있다는 점이 너무나 감사하며, 몸은 나아가 먹어야 만 내적으로는 늘 새롭게 짚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노벨병원 원장·정신과 전문의·의학박사〉

한다. 노화에 따른 신체변화와 각종 증상들이 생겨나는데 너무 몸에 집착하지 않도록 한다. 자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은 경우 같은 것을 오래 간직하며 유타화를 키우다가는 노인성 우울증(가성치매)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높다.

그리므로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고민하는 자신의 모습을 제삼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자신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하기 권한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이 나의 발전을 이뤄가기로 너무나 소중하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청각장애인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므로 수화 언어를 구사하는 동료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살고 같이 일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

호화판 모델하우스 합리·실용적 대안 없다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때 모델하우스를 지어 공개한다.

하지만 단순히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 1회용의 가건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대개 모델 하우스의 위치는 시내 중심가인데 입주자 모집과정에서 시내 교통을 마비시키는 부작용도 많다.

또 입주자 모집이 끝난 후에는 아무런 쓸모없이 이를 철거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건축폐기물도 상당할 것이다. 값비싼 고품질의 내장재들도 모두 폐기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집한채가 통째로 버려지는 셈

이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폐기물에 대한 비용은 모두 건축회사가 부담하겠지만 이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전가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따라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동식 주택으로 만들어 전시가 끝나면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제작하게 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도형·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無等 売支

해발 1,507m 자리한 노고단의 군(軍) 부대가 철수했다. 1968년 북한의 '청와대 습격 사건' 후 공수부대를 파견, 대응훈련을 실시한 지 40년 만의 일이다.

본격적인 군 주둔은 1974년부터 시작됐다. '남원 57 통신대'와 '31사단 구례 3대대' 경계병 30여 명이 2천760m 부지에 철조망을 두르고 콘센트 막사를 지었다. 그들이 떠난 84년 이후엔 육군 항공대 3~4명만이 남았다.

봄날, 노오란 원주리와 붉은 산월쭉, 털진달래로 뒤덮인 야고산대(亞高山帶)는 군 학교에서 지방학회장을 베어내 마을을 빛냈다.

토끼·노루·멧돼지·삶·너구리…는 카빈 총표작지(標的紙)였다. 여자 등산객과의 '썸씽'도 비일비재했다.

풀밭이 쌓이고 칼바람이 매섭던 79년 3월 초, 한밤중 내무반 난로가 폭발했다. 기우던 개 한 마리가 죽고, 무기며 탄약과 옷·침구도 땅탕 타버렸다. 옆엔 자가발전과 월동용으로 저장해 놓은 휘

meonsa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秸宰暉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부 사 회 2 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F A X 2